

신병세례식, 신앙고백후 394명 세례받아

담임목사 설교 '내가 믿나다', 해바라기 공연 이어져

국내선교3위원회 군부대교회사역부 주관으로, 9월18일 오후2시에 전방 6685부대 신병교육대를 방문, 여호와 닥시교회에서 740여명의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394명의 신병세례식이 있었다.

임광상목사(사단군종참모)의 예배사회와 이인호 목사가 기도하였고, 문동학 담임목사는 설교를 통해 '내가 믿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서약식과 세례를 위한 기도, 담임목사를 비롯 이창현, 윤덕영, 정영환, 이인호 목사, 3명의 군종목사와 성백술장로 신재숙권사 박대길, 장순웅, 윤봉섭, 박지원, 조정숙 집사가 세례위원이 되어 394명의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훈련병들을 일일이 안아 주기도 하였다. 장병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 하기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고백하였으며,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을 버리기로 서약



했고 또한 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을 믿으며,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나라와 부대에 충성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로 서약하고, 또한 세례증서와 목걸이 십자가를 받고 평생동안 주와 동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2면에서 계속)

10월16일, '새가족환영의날' 행사예정

새가족사역팀 주관, 새가족환영의날 행사가 오는 10월 16일(토) 오후 6시에 본교회 소년부실(3층)에서 있게 된다. 이 날 참석할 대상은 200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등록된 새가족이다. 새가족이 속한 구역의 구역대표 1명과 교역자와 장로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대략의 순서는 뷔페를 통한 식탁교제와 축하공연, 새가족의 간증, 담임목사와의 만남과 대화의시간 등이 진행될 것이다. 환영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미리 교역자와 교구리더를 통해 참석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역지도자모임, 10월6일(수)부터 시작

교구지도자 모두 참석하기를

수요성경공부 후에 진행되어 온 "구역장성경공부"가 10월 6일부터 "구역지도자모임"으로 대체된다. "구역지도자모임"은 교구목사, 교구장로, 교구안수집사, 교구권사, 구역장, 부구역장, 권찰 그리고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중예배실에서 수요성경공부를 마친후 이어서 가지게 된다. 이 모임진행을 담당하게 된 이인호목사는 종전의 "구역장성경공부"의 기본정신을 이어받되, 모임의 대상을 교구의 모든 사역자로 확대하여 구역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영성개발에 초점을 맞추려 준비중이다. 모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요성경공부 후 자리를 옮기지 않고 중예배실에서 8시30분에 시작하여 9시30분을 넘기지 않고 마칠 계획이다.

권사월례회, 기도의 여인되기를 다짐

권사월례회가 지난 21일(화)오전 11시 지하 찬양연습실에서 있었다. 이인호 목사는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한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인들처럼 기도모임을 사모하는 권사회가 될 것과,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역군들이 되기를, 그리고 새벽기도회의 중보기도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2면에서 계속)

총회, 기구개혁 인준 및 교회의 현안논의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시국성명서 채택

지난 13일 60개 노회 1천5백 명의 총대와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김지철목사 시무)에서 개막된 제89회 총회는 금 회기 교단을 이끌어 갈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시국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하는 한편 연금 재단 등 교단의 현안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제 법규 개정과 제정에 관한 건은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추첨제'를 골자로 한 총회 임원 선임 규정은 부결 폐지되었으며 연금재단이 제출한 연금재단 정관 및 규정 개정 현의안은 본보 정관 개정과 함께 1년간 연구하도록 해달라는 심의 결과가 허락됨에 따라 다음 회기에 다뤄지게 됐다.

신학교육부가 총회의 수임을 받아 연구한 '하나의 신학대학원을 위한 정책'(안)은 현재 마련된 정책안을 기초로 교단 내 관계 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와 실무적 접촉

후 다음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허락돼 한 회기 더 연구하게 되었으나 목회자 수급 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부터 매년 50명 감소된 인원을 뽑게 됐다. 총회는 초안위원회(위원장:이종운)가 제출한 시국성명서 채택안을 기립박수로 받자는 동의에 따라 전격 채택했다.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문서로 발표된 이번 성명서는 현 시국을 스과거사 들추기 △국가보안법 폐지 △행정수도의 졸속 이전 △비판 언론에 대한 압박 등 이념적 정략적 일에 몰두함으로써 야기된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는 현 정권의 독선적 비민주적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국성명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인권 침해 조항에 대해서는 마땅히 고

쳐져야 하나 '안보를 위한 법'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 폐지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국론분열 수습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현 정부 여당이 제출한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학재단 비리 근절이라는 근본 취지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립학교의 근본을 부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졸속 이전 추진에 앞서 국민적 합의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으며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추진해 감에 있어 한미 관계나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 안보의 원칙 등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국성명서 채택과 관련해 일부 총대들은 성명서에 나타난 주장들이 특정한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선교 장애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가 하면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 현 시국과 총회 시국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했다.(기독교공보 기사 참조)

교회출석치 않는 이들을 이끌도록

seeker 소그룹 리더훈련

seeker 소그룹 리더훈련이 이번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3층 초등부실에서 담임목사의 진행으로 열렸다. 14일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양육클래스는 12월 7일까지 주님의 리더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소그룹을 만들고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이 클래스의 목적이다. 이 양육과정을 마친 이는 seeker 소그룹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이 클래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불신자를 교회로 이끄는 신선한 전도혁신', '교회가 싫은 77가

지 이유',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등의 교재를 참고하여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seeker들을 소그룹으로 데려오기를 시작으로 seeker 소그룹의 토론을 인도하기, 소그룹을 통하여 seeker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함께 기뻐하기의 순서로 매주 신선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1면에 이어서)

권사월례회, 기도의 여인되기를 다짐

이여 이동순 회장의 인도로 기도회를 가졌는데, 나라안의 여러가

지 현안들에 대해 갈라진 국론이 대화와 양보로 일치점을 찾아가기를 기도하고 청소년 실업문제 등에 대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노봉옥권사의 마무리기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월례회를 마친후 신임권사들이 마련한 하남의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권사들은 삼삼오오 이야기 꽃을 피웠으며, 특히 설교 말씀 가운데 있는 기도모임참석에 대하여 공감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슬림을 위해 기도합시다”

목요모임, 15일부터 30일간 무슬림을 위한 기도기간으로 선정

9월 23일 목요모임은 김용의 선교사의 설교가 있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자신에게 '이것'이 없다면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어린양의 피로 유월절을 보내고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지키시고 먹여주셨다. 그리고 가나안땅에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이것'이 결함이 되어 40년 광야생활을 보내야 했다. 다른 결핍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더 은혜가 되지만 바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상도 얻지 못한다.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며 결단하고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진다.

예수전도단은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추진하고 있다. 무슬림인은 이 30일 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알라에게 기도하고 해가 지면 식사를 한다. 이 금식기간을 위해 92년부터 전세계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위해 역라마다 기도를 하자라고 결의했고 2004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기도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2,000원)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했다. 이 기도책은 무슬림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들을 모욕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단지 철학이며, 그 철학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이 기

도책자는 무슬림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고, 복음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슬림에게 보여주는 것을 권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권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무슬림 세계를 중보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이 기도책자로 하루 하나의 이슬람 국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한 설명과 기도제목을 가지고 같이 중보기도에 협력하게 된다.

(서울지부 연락처 : 02-871-7351 국민은행 812-702-04-067383 예금주: 임성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시작

호스피스(Hospice)란 임종에 가까운 말기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요구에 응하여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평화로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는 전문자원봉사자이다. 주님의교회는 1994년부터 호스피스를 시작하였다. 많은 분들이 1년에 두번 봄, 가을에 실시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 계속 참여해서 환우들을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익힌 후, 원자력 병원, 국립의료원, 한양대병원, 강남병원, 구리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

원, 대항병원과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이번 가을교육에도 정동제일교회 교육관에서 준비된 31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에 정희성 목사를 비롯 이정자, 김경식, 최정운, 정영하 집사 등이 전국에서 모여든 200여명의 선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40여시간의 교육에 동참하고 있다.

“구약 전체의 숲을 보는 시간되길” 수요성경공부, 담임목사의 구약개론 강좌

9월 22일부터 수요예배는 문동학 담임목사의 구약성경개론을 나누게 된다. 22일은 '창세기의 창조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열었다. 문동학 담임목사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가지고 칠판에 직접 표를 작성하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전에는 이사야에 한구절마다 담겨져있는 뜻을 풀고 문맥상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이번 구약성경개론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흐름을 잡아나가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과 사람과 상황들이 상반되는 모습들로 표현하고 있다. 또 타락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요성경공부는 앞으로 9시 30분까지 구역장성경공부가 끝날 수 있도록 말씀시간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해나가게 될 것이다.



새가족의 구역정착, 새가족도우미에 달려

새가족사역팀에서는 구역정착을 돕는 새가족도우미의 역할이 앞으로 새가족들의 교회정착에 필수적이라 보고, 구역별로 부구역장이 세워지면 이들에게 새가족도우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새가족도우미의 주된 역할은 구역으로 연결된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새가족이 등록하면, 그 다음

주에 해당 교구구역장과 해당 구역의 새가족도우미를 비롯한 구역대표가 함께 새가족환영실(4층)에서 새가족을 만난다.

첫 만남후 새가족도우미는 4주간 새가족이 자연스럽게 교회와 구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구역원을 비롯한 교우를 소개하며, 정착과정의 어려움을 덜도록 섬긴다.

4주가 지나면 새가족 정착현황을 새가족도우미 기록부를 통해

교구구역장에게 전달하여 교역자가 새가족의 정착상황을 알고 필요한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1면에 이어서)

신병세례식, 394명 신앙고백후 세례받아!

담임목사 설교 '내가 믿나이다', 해바라기 공연 이어져

장병들은 세례를 받은후 2부순서에서 해바라기팀의 공연과 유상렬 전도사가 리더가된 청년부 율동과 찬양에 하나가되어 3시간여를 주안에서 하나가됨을 확인 하였다.

일정을 마치고 박진수 집사(부사단장)의 안내로 통일전망대를 방문 하였다.

안내장병의 브리핑을 듣고 망원경으로 북쪽을 관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박진수집사와 하현숙집사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사단내의 28개교회

를 수시방문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국내 선교3위원회는 10월 30일에 한 번더 우리교회 주관 신병세례식을 계획하고 있다.



교회소식

1. 세례식 11월3일로 연기

장년세례일정이 11월 3일(수)로 연기되었습니다. 장년세례교육은 10월 3일(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3집회실에서 5주간 실시됩니다(문답포함). 문의사항은 주일 1층 로비의 세례안내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재훈집사 011-289-2111)

2. 2004 국제평화마라톤

강남구에서 주최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다음주일 있습니다. 한강, 양재천(삼성교 다리 밑 통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므로 교통통제는 없습니다.

3. 주차안내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차안내부에서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쓸어 내면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전체적인 차량의 흐름을 고려해서 안내하다보니 개인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불편한 쪽으로 차량을 안내할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안내의 기본 원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비나 눈이 오면 운동장 주차를 하지 않고 교회 주변도로 및 뚝방길쪽으로 우회하도록 안내합니다. 전날 비가 와서 운동장이 젖어 있을 경우에는 당일날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운동장이 마른 상황을 보고 운동장 안내여부를 결정합니다. 운동장이 주차장용이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취해지는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부 찬양대원들의 차량은 예배 전후로 찬양연습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동에 지장이 없는 한쪽 공간에 자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교우들의 차량은 지하주차장과 별도 표시가 있는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비장애교우들은 이곳에 주차하지 않도록 안내를 합니다. 특별히 건물 주변에 주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면주차 원칙으로 합니다. 예배시간에 임박해서 오는 차량이 교내로 진입해서 속도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와 주시고, 늦었다 할지라도 교내에서 시속 20km이하로 속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차안내부에서 수신호 및 기타 안내상황에 대해 연재 할 계획입니다. 덥고 추운 것을 마다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한마디 말이나 고마움의 표시로 손을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30여선교회원에게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교회가 커가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교회 프로그램은 많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나누려고 할 때 어디로 갈까 망설여 지지는 않으신지요. 또, 서로를 알지 못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울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마음들을 모두 헤아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특별한 모임도, 거창한 구호도 없지만, 서로를 보듬어 안고 싶고 서로에게 기대기를 원합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는 서글픈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알고 ‘함께함’ 해요. 특별히 제 삼 여선교회는 일년에 봄/가을 두 차례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와 연합함을 배우고, 또 영적 훈련을 위해서 기도원 등에 찾아 갑니다. 같은 연배의 친구를 원하시나요? 꼭 3 여선교회에 참여하세요!

환경통신강좌 첫모임가져

기독교환경연대와 연합하여 실시하는 수강생들이 첫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환경통신강좌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10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매월 1회의 모임을 통하여 점진하고 삶의 환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인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번 모임을 통하여 내년도에 좀 더 체계적으로 환경부 사역을 구상하고, 사역팀을 형성해 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임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인 성도님은 “환경교육이 너무 추상적이다.”고 말하며 관념에 그치는 환경교육 때문에 교사인 자신도 환경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을 이해하기 쉽게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환경운동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 등의 물음을 던지고 있는 이 모임은 앞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느낀 점들, 개선할 점들을 나누는 작은 소그룹이 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 1시 이후에는 유소년축구클럽 관계로 이동주차하여 주십시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

4. 설만찬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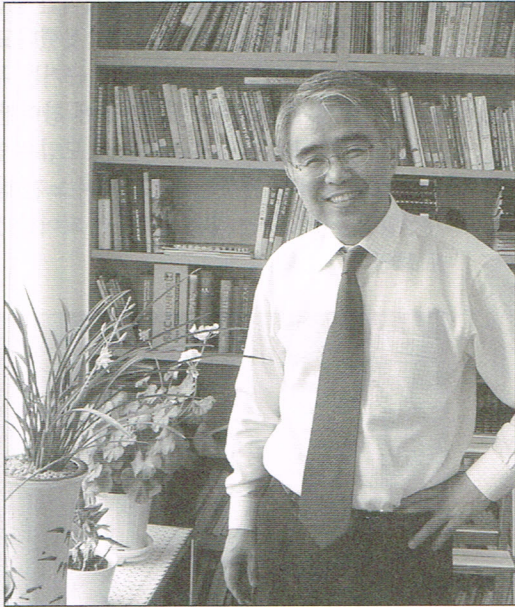
다시 희망 (Hope again)

오늘 설교 (2004년 9월 26일) 본문이 요한복음 21:15-18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 본문 (요한복음 21:2-13, 2003년 12월 28일 주일설교)의 설교를 다시 씁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필요로 하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설교를 이해하는데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이대 흥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 이상입니다. 이 영화에서 절대반지를 파괴하는 대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인공 프로도 (Frodo)는 영화 속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I do not know the way." 이 말은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 "나는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뉴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도의 이 말은 현재 우리의 삶을 웅변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프로도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스미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길잡이가 선한 존재인지 또는 악한 존재인지, 약한 존재인지 또는 강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혼재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분열되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프로도의 길잡이 스미골은 우리의 현실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올해(2003년)의 가장 큰 사건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일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미국의 국방성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가 애매모호한 말을 해 화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진 알려지지 아니한 것들이 있고, 또 알려지지 아니한 알려지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 ("There are 'known unknowns,' and then there are 'unknown unknowns.'") 이 말은 "올해의 가장 애매모호상"이 있다면 금메달을 딸만한 표현입니다. 이 말도 올해(2003년)를 결산하는 문장 같기도 합니다.

저도 애매모호한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정의의 말할 때에 정치적 언어가 되지 않기가 어렵고, 사회윤리와 개인도덕을 말할 때 어느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 하지 않기가 어렵고, 바른 교육과 바른 신앙을 말할 때 특정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피하거나 초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한 해 이었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바다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센 남자이었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었으며 그의 표정은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는 미적지근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잡이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사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정에 관한 한 그는 충실했으며 의리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용기가 지나쳐 때로는 그것이 만용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헌신과 확신을 너무 오버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홀로 일어서서 입으로는 용기 있는 약속을 했지만 몸으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이름을 추측할 수 있겠지요? 그는 베드로입니다. 그가 한 번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후 다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점점 더 강하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경고했던 때였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까 부르듯이 너희의 발목을 잡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 (눅 22:31)

하지만 베드로는 태연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눅 22:33)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확고한 이 결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

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눅 22:34).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심각하고, 뼈가 아프고 시릴 정도로 예리한 경고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틀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아닌 세 번씩! 그것도 비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눅 22:61-62).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베드로가, 그렇게 의지가 강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용기가 있었고 그렇게 헌신적인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느낀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느낀 수치감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의 깨어진 마음을 표현할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서적으로 파괴된 것이나 다름 없고 절망감에 휩쓸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을 감을 때마다 자기를 응시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어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베드로야, 네가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느냐?"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날마다 들리고, 그 얼굴이 베드로에게 날마다 보였을 것입니다. 다음 날 주님께서 못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못은 베드로의 심장에 박히는 것이나 다름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넘어 희망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끝장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끝장입니다. 그리고 네 개의 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또 다시 불확실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일곱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라" 하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먼저 갔으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서 물고기를 잡아 허기를 채우려고 했다 "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절, "그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기록과 4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 보지 못했다"는 기록을 볼 때, 이 장면은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던 장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부정적이고, 무엇인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절망적인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는 장면인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한 번 만났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또 회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회의와 의심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허무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생업으로 돌아가자! 그랬군요. 그랬는데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그 생업마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밤 새워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어획량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계셔도 그들이 예수님인줄 알아 보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들의 행동이 “배교 또는 배신”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들의 행동은 “심한 절망감 때문에 취해진 목적없는 행동”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바라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이 배신자들! 두고 보자!’ ‘이 겁쟁이들! 내가 너희들을 믿은 것은 실수야!’ ‘이 세속 주의자들! 내가 그토록 말했건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다고...’ ‘이 구제불가능한 자들! 실수와 실패도 한 두 번이지, 어쩔 도리가 없는 자들이구먼... 쫓쫓쫓...’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를 잡았느냐? 얼마나 잡았느냐?” “너희들이 수고가 참 많구나.” 제자들은 “없나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누가복음 5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하셨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때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날 아침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이 순간에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목소리,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를 그들이 알아 보지 못할 수가 있단지요? 3년 동안 마주 보았던 그 얼굴, 그 눈매, 그 미소, 그 표정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단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확실히 무엇인가 빠지긴 빠진 모양입니다. 바로 그것은 고기잡이입니다. 다시 돌아간 생업입니다. 다시 돌아간 옛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애들아, 나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하셨더라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3년 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주님의 첫 만남은 참 감격적 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주님은 바로 그 결단을 베드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아픈 추억으로 영원히 묻혀버릴 뻔 했던 그 만남, 그 만남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상기키셔서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첫만남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복음서의 끝인 것처럼 우리는 2003년의 끝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베드로 못지 않게 약속과 헌신을 수없이 했습니다. 베드로보다 못지 않게 충성했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보다 못지 않게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역시 베드로보다 못지 않게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베드로만큼 약속을 반복하고, 헌신과 결단을 반복하고, 그래서 다시 부끄러워하고, 다시 죄책감에 빠지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옆에서 나를 바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아 보지 못한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손해, 또 다시 실패, 또 다시 절망, 또 다시 좌절, 또 다시 허무... 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스스로는 부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내가 싫을 정도로 내가 실패를 반복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나에 대하여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봐!’ ‘또 해봐!’ ‘다시 시작하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나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나에게 대하여 감동했던 그 때 그 아름다운 일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처럼, 다시 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계시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해봐!’ ‘포기하지 마!’ ‘처음같이 다시 해보자!’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를 새벽녘에 너무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잡느라 겹옷을 벗고 있다가 얼른 겹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 내렸습니다. 육지까지 헤엄치면서 갔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많이 잡힌 그물을 끌어 올려서 그것을 작은 배에 옮겨 태운 후 육지까지 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빵도 있었습니다. 빵을 다시 데워서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단둘이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짧아도 2-30분은 충분히 지났을 것입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 2-30분간 주님과 베드로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늦게 도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싱싱한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역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행동을 옮깁니다.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립니다. 그물에 가득찬 큰 물고기를 세어 보니 백원세 마리입니다. 이정면 그물이 찢어질만도 한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 다. 153 마리의 물고기와 찢어지지 아니한 그물, 이것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5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 이후 여러가지 해석이 제공되어 왔습니다.

제롬(Jerome)은 153가지의 물고기의 종류라고 해석했지만 본문이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타고라스의 삼각형을 상징한다고도 말했지만 이것도 재미있는 추측일 뿐입니다. 숫자에 관한 히브리인들에 관습을 고려해 보면, 이것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세는 기쁨을 가졌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든지 세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기관이 히브리어로 ‘소페르’ (sopher)인데, ‘세는 사람’ (counter)이라는 뜻입니다. 서기관은 성경본문의 글자, 단어, 문장 등을 세는 것이 직업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이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기를 세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른 편에 던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모두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마리, 두 마리 ... 육십한 마리.... 백원세 마리! 그들은 웃으면서... 떠들면서.... 세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놀았습니다. 그들은 리크리에이션(recreation)을 하고 게임을 한 것입니다. 생업을 위한 고기잡이가 아니고 취미를 위한 낚시를 한 것처럼 말입니다.

153마리를 즐겁게 쉰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자 아침 먹자.” “여기 빵이 있다. 빵을 먹어라! 어이, 베드로, 자네 너무 급하게 먹지 말어!” “그리고 여기 고기 구워 놓은 것도 있다. 이것 참 싱싱하구나! 얼마나 고소한지 모르겠다. 많이들 먹어!”

즐거운 아침입니다. 이 아침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음성,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미소 - 이것이 제자들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기억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즐겁게 먹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행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2003년의 세모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른 편에 던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모두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다시 옵니다. 다시 희망!

양육클래스탐방

느헤미야에게서 발견하는 '위기의 리더십'

이인호목사가 금요일 오전에 진행하는 양육클래스 "위기의 리더십(느헤미야서 연구)"은 리더십 부재의 시대에 개인,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바라는 성경적 리더십을 느헤미야서를 통해 함께 찾아가는 여행이다. 첫 시간은 자기소개와 강의계획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함께 개인, 가정, 교회/구역, 나라/민족 그리고 세계적인 위기 진단이 있었다. 앞으로 리더십의 정의, 느헤미야서의 배경, 영적 각성과 도덕재무장 등을 공부할 것이며 10월 마지막 주에는 판문점 방문과 민족을 위한 기도회 나들이도 계획 중이다. 준비물은 성경, 바인더노트, 목상노트 및 필기구이며, 유인물 "느헤미야서목상"을 참고하여 매일목상 훈련을 하게 된다. 또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10독함으로 말씀의 넓이와 깊이로 이끄는 도를 도울 것이다 한다. 매주 3분(매일 30초)을 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로 했다. 반장으로는 윤기선 집사, 총무에는 김혜영 자매가 선출되었다. 양육클래스는 9월말까지 계속신청을 받는다.

자기우상(selfism)을 벗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금요일 9시 30분, 상담실에서 10여명의 상담부원들이 모여 2학기 두 번째 소그룹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박성자 집사는 "심리학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자기주장과 자기실현 등을 강조한 결과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청소년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여 이러한 자아심리학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나누었다. 첫째, 지나치게 '자기'를 강조하는 것은 해롭다. '자기우상' (selfism)에 빠지는 것은 신앙과 모순된다. 둘째, '자기'에 대하여 아예 강조를 하지 않는 것은 속임수일 수 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은 건강한 자아상을 발견했을 때 가능하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정영숙집사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한 마디로 함축하는 듯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자아에 대하여 현실적인 관점을 제 공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멀리하고 수동

적이 되며 활기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반대로 그 분은 우리를 자발적이고 사랑할 수 있고 능동적인 새로운 피조물, 곧 왕의 자녀삼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 주셨다. 상담부는 우리 교인들이 건 강한 자존감을 갖고, 다른 사람도 건강한 사람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기도하며 마쳤다.

양육클래스탐방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정영환 목사가 진행하는 "제자의 삶" 주일반은 이 질문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 강의는 주일 오후 1시 30분 3층 소년부실에서 진행된다.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강의를 듣고, 함께 나눈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대표되는 제자의 삶이 무척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지만, 정영환 목사는 제자의 삶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벼운 짐"이 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마19:26) 교제는 "제자입니까"(오르티즈, 두란노),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김영봉, IVP), "나를 따르라"(본회퍼, 대한기독교서회)를 사용한다.

유년부, 수련회 후속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인 선교를



수련회를 다녀와서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하기로 했다. 먼저 "돕는 선교사가 되겠어요"라는 주제를 갖고 아이들과 함께 하였는데, 반별로 섬길 선교지를 조사하고 무엇을

여름수련회 주제가 "세계를 품는 어린이"였는데, 아이들에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훈련 받은 기간이었다고 본다.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회의하였다. 8개 나라가 선정이 되었고 기도하기, 헌금하기, 선물보내기, 편지쓰기 등등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였다. 다음 주엔 선택한 나라에 대해서 지난 주에 결정한 것을 실행하였는데 아이들은 사뭇 진지하게 참여하여 여러 가지 선교 물품과 편지와 기도 그리고 헌금을 모아 반별로 선교지에 보내는 활동을 하였다. 그 다음주엔 세계 선교지도 퍼즐을 하였다. 놀이활동을 통하여 넓은 세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 속에 우리들을 부르심에 감사하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쟁반놀이방'을 통하여 수련회때 배운 선교에 대한 찬송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쟁반놀이 활동을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즐겁게 찬양을 배우고 익히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자주하자는 아이들의 주운동도 있었다. 다음주엔 추석이라 전통놀이중에 사방치기를 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다.

초등부 웃놀이 환호성과 아쉬움의 장 되어

지난 9월 19일, 초등부 예배(오전11시 20분) 후 5층 복도에서 반별 웃놀이 대회가 열렸다.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장소를 어디로 해야 할지가 정해지지 않던 중 5층 복도에서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1층 교회 사무실과 5층 도서실의 도움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다. 작년과는 달리 1회전에 탈락한 반을 위해서 패자 부활전 경기도 운영을 하였다. 각 반 담임선생님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대진표가 결정되고 5층으로 올라가서 게임을 시작 하자 마자 아이들은 금세 웃과 말판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의 응원과 게임에 5층 공간이 시끄러워 지나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나와서 어린이들의 웃놀이 경기에 관심을 갖기도 하였다. 20분정도가 지나자 탈락해서 아쉬워 하는 어린이들과 이겨서 환호성을 지르는 어린이들로 웃놀이 대회가 진행 되었고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마치게 되었다. 1등은 3학년 1반, 2등은 3학년 5반, 3등은 4학년 5반. 패자부활전에서 이긴 특별상은 4학년 9반이었다. 이번 웃놀이 대회를 통해 초등부 어린이들이 자신이 속한 반에 소속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게임과 응원을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한나숙집사의 독창회 생일파티 결들인 클래식 잔치되어



지난 9월 18(토) 오후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시온찬양대 소프라노 독창자인 한나숙 집사의 독창회가 있었다. 토요일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음악계 많은 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는 대원들 그리고 한나숙 집사에게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자리를 채웠다. 현재 국내 최정상급 소프라노 성악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숙 집

사는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쾰른 국립음대 대학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시절 동아콩쿨에 1위에 입상함으로 그의 연주 실력을 인정받았고, 조선일보 주최 신인음악회도 출연하였다. 국내에서 5회의 독창회와,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 초청 독창회를 비롯 미국, 캐나다에서 3회의 독창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마술피리" 등의 작품에서 주역을 맡았고, 헨델의 "메시아",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르나" 및 각종 미사,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을 연주하는 등 그의 연주 영역은 가곡은 물론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A.Zemlinsky (1871-1942)의 "페르디난트 그레고로비우스의 토스카니 민요에 따른 왈츠 Op.6"와 H.Peutter (1900-1985)의 "프리드리히 뢰러리의 시에 의한 세 개의 가곡 Op.67"과

H.Pfitzner (1869-1949)의 "오래된 노래 Op.33" 그리고 A.Schoenberg (1874-1951) - "카바레 송" 등을 열창했다. 마침 이날이 한나숙 집사의 생일이라 리사이틀홀 로비에 피로연을 베풀어 생일을 축하했는데, 연주회와 더불어 생일 파티까지 그야말로 가을밤의 즐거운 클래식 잔치가 되었다.

학부모기도회

10월2일부터 시작

11월 17일, 수학능력평가일이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자녀의 합격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간절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할 때이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 한다. 어쩌면 이것은 특정한 종교를 넘어서 자녀를 둔 모든 부모의 인지상정으로부터 기인한 자연적인 현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서 이 기간은 단순히 합격을 바라는 기간으로 머물 수 없다.

오히려 이 기간은 우리의 삶속에 깊숙히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라 말할 수 있다.

주님의교회도 오는 10월 2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3층 초등부실에서 학부모기도회를 가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순한 합격을 위한 맹목적인 부르짖음이나 그것을 위한 부모의 공을 쌓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이 특별한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자녀와 자기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고, 믿음과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교회와 성도는 합심하여 수험생과 그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